

● 두산, 동반성장 이행 우수 경영진 스톡옵션 '더' 받는다

박용현 회장 '동반성장 이행 실적 경영진 평가 반영 의지' 실행



두산(회장 박용현)은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동반성장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 경쟁력 공유 프로그램 △ 재무지원 △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적을 계열사별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를 최우수 회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실무총역 등 4명에게 장기 성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지급해 온 기본 스톡옵션에다 동반성장 이행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센티브로 40% 가량 추가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보상 책정은 동반성장에 대한 박용현 회장의 강력한 실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사장단 회의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경영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현 회장은 평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실질적 추진을 강조하고, 경영진의 이행 실적 점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협력업체 방문 등 동반성장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부터 협력업체의 성장 지원을 통해 두산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업체 강화지원단 발족, 윈-윈 콜센터, 협력업체 핫라인과 전용 소통 창구 마련, 성과공유제 도입과 자금지원 등 계열사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 참여 확대

포스코P&S · 포스코NST 등 10개 출자사 신규 참여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중소기업에 다가선다.

최근 포스코P&S, 포스코NST, 포스위드를 비롯한 10개 출자사가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에 추가로 참여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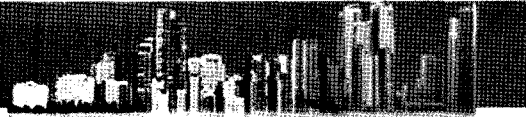
이로써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를 포함한 기존 13개사 임원 196명에서 23개사 228명으로 참여 폭이 확대됐다.

새로 참여한 이들 출자사는 포항, 광양, 경인지역 중소 고객사와 협력 중소기업 17개사를 방문해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2월 포스위드가 방문했던 창신실업의 이창선 사장은 "평소 회사 혁신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등 포스코의 동반성장활동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 및 출자사 임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하고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는 포스코의 대표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특히 3월부터는 포스코터미널, 포스텍기술투자 등 더 많은 출자사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 신세계백화점, “100년의 동반성장을 향해”

2011년 ‘파트너 행복경영 실천의 원년’ 선포·동반성장 3대 핵심 실천사항 발표



신세계백화점(대표 박건현)은 2월 23일, 200여 협력회사 대표를 초청해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협력회사와 경청과 소통을 위한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2011년 협력회사와의 동행 신세계백화점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박건현 대표는 “동반

성장은 먼저 협력회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 협력회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신세계 백화점과 40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협력회사에 감사패를 증정했듯이 앞으로는 40년을 넘어 100년 이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회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신세계는 협력회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동반성장 성과를 선보일 수 있도록 2011년을 “파트너 행복경영 실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동반성장 3대 핵심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동반성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신세계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대표이사 및 임원평가에 동반성장 항목을 도입, 의사결정 및 영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핵심 실천사항으로 우리은행과 연계해 1,200억 원 규모의 상생플러스론을 신설해 중소 협력회사 저금리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대규모 매입으로 인한 중소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로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리뉴얼 점포의 매장은 인테리어 보상제를 도입해 2년간 적용함으로써 협력회사 입장에서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세계백화점은 상품본부 내에 동반성장추진팀을 이미 신설했다.

특히 신세계 695개 협력회사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협력회사 CEO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백화점 대표의 협력회사 방문의 날도 분기별로 운영하고 분기별 1회마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포함됐다.



LG전자, 협력회사 경쟁력 '현장'에서 챙긴다

남영우 사장, “협력회사 품질과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지원할 것”



LG전자가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LG전자는 올해 협력회사 지원의 초점을 품질, 생산성, 작업환경 등 제품생산의 기본 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LG전자는 협력회사에 생산성 강화를 위해 파견하고 있는 공장혁신전문가(Factory Innovator)와 경영컨설팅전문가를 각각 20명과 10명에서 40명과 15명으로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협력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 전문가들을 파견해 협력회사가 스스로 생산 평준화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인 '4Level' 획득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의 품질역량 향상을 위해 회사내 품질전문가들을 협력회사에 파견하고 지원하는 '협력회사 품질전문가(SQE, Supplier Quality Engineering)조직'을 운영한다.

협력회사의 작업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에너지, 환경, 안전, 건강(Energy, Environment, Safety, Health, EESH) 분야에서 LG전자는 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분야 담당자들이 협력회사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으로 신규 규제 및 대응방법, 공정상 효율적 에너지 사용방법, 다양한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도 병행기로 했다.

LG전자 경영혁신부부장 남영우 사장은 2월 16일 창원지역 협력회사 (주)디케이, (주)테크노전자, 이코리아 등 3개 업체를 방문하고 1, 2차 협력사간 대금지불관계, 재고운영 상황, 원가절감 노력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남 사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협력회사의 생산성, 품질, 작업환경 등을 직접 챙기고 현장에서 협력회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그는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핵심역량”이라며 “품질과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LG화학, “동반성장으로 배터리 강국 만들자”

김반석 부회장, 배터리 소재 협력회사 ‘리켄’ 직접 방문해 동반성장 강조



LG화학 김반석 부회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활발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반석 부회장은 최근 충남 금산에 있는 배터리 소재 협력회사 리켄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이남석 대

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동반성장 활동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의 협력회사 방문은 지난해 11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회광하이테크에 이어 두 번째다.

리켄은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액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해 LG화학은 리켄으로부터 약 80억 원의 소재를 구매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혼자가 아닌 함께 잘할 때 경쟁력은 배가되는 것으로,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기술의 융합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어느 산업보다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동반성장을 더욱 공고히 해 한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제패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현재 LG화학은 하도급업체 100% 현금 결제, 협력사 기술교육 무상 지원, REACH(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환경이슈 공동대응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LG화학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하여 중장기 동반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단, 협력사 고민 해결 발벗고 나선다

협력사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현안 공유하는 '동반성장Day' 실시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사장단이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협력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동반성장Day'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2월 10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사장을 비롯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소속 주요 임원들이 경기 안성 소재 신홍정밀을 방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를 시작으로 무선, 반도체, LCD 등 8개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는 각 사업부장들이 직접 2개월에 한 번씩 협력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구매, 품질 등 협력사 접점부서 임원들과 상생협력센터장이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 2, 3차 협력사가 자리를 함께 해 제품 개발방향, 시장 상황 등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협력사의 VOC(Voice of Customer)를 듣고 즉시 해결해주는 윈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윤부근 사장이 방문한 신홍정밀은 삼성전자와는 1972년부터 함께 일한 1차 협력사로, TV 내외부의 각종 금속 프레스물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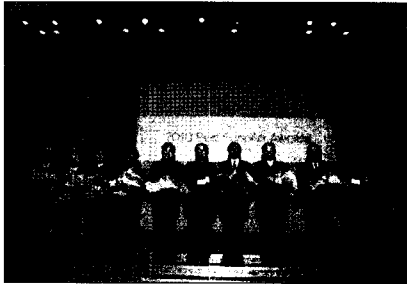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윤부근 사장은 "삼성전자 TV가 5년 연속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었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윈-윈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동반성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력사를 방문한데 이어 11월에는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이 현장을 찾았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장원기 LCD사업부 사장이, 권오현 반도체사업부 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세계 1등 같이 합시다”

경영실적 공유회 개최·협력회사 CEO들과 만나 2011년 중점 추진과제 공유



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가 보다 발전적인 동반성장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LG디스플레이의 권영수 사장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서 개최된 ‘경영실적 공유회’에서 60여개 핵심 부품소재 협력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2011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2010년 실적 분석을 포함해, 2011년 경영전략 및 생산계획 규모, 구매방향 등 올해 LG디스플레이의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새해를 맞아 2011년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전략을 밝혔다.

△ 1등 상생을 통한 No.1 Supplier 육성 계획 △ 2, 3차 협력회사로의 동반성장 확대 △ 개발상생 등 차별화된 상생역량 강화 △ No.1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경쟁력 확보 △ 물량 증대상황 속 완벽 조달 실현방안 등 협력사와 LG디스플레이 양측 모두의 의지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공유한 것이다.

‘경영실적 공유회’는 협력회사들이 LCD업계,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영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권영수 사장 취임 이후 이번이 5년째로 매 분기별 개최되고 있다.

권영수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서도 LG디스플레이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1등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력회사가 있다”고 감사를 표하며 “2011년에도 끝없는 도전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LG디스플레이가 1등 회사가 되기 위해 확고한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으로 어느 해보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T, 협력사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한다

제9회 IT CEO 포럼 조찬세미나 개최·중소협력사와의 질적 동반성장 확대 계획



KT(회장 이석채)는 2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포럼 회원, 벤처단체장 및 IT업계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IT CEO 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 조준희 IBK기업은행장, 김일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홍

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KT는 협력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기회 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동반성장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KT는 KT의 역량과 협력사의 기술,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우수 협력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시도할 예정이며, 특히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KT간 동반성장 플래그십 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업기회 공유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파트너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수요예보제를 확대 시행해 협력사가 사업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 특허, 교육,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구매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스마트폰 활성화와 유무선 컨버전스 가속화에 따른 통신사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N스크린, 앱스토어 등 미디어콘텐츠 사업 강화 등 주요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사에게 유용한 실질적 정보제공을 위해 2011년 KT의 분야별 핵심사업도 발표했다.

KT 이석채 회장은 인사말에서 "IT CEO 포럼이 올해 3년차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올해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동반성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건설, 협력업체와 '상생행복날개' 편다

SK건설, '행복날개협의회 발대식' 가져·정례적인 정보 공유와 상생협력방안 논의



평소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SK건설이 협력업체와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도입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행복날개협의회 발대식' 을 가졌다.

행복날개협의회는 우수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발족됐는데, 이날 행사는 SK건설 윤석

경 부회장을 포함한 SK건설 임직원과 협의회를 구성할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복날개협의회는 SK건설의 협력업체 중 심의를 거쳐 총 51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토목, 건축, 기전, 플랜트 등 4개 분과로 활동하게 된다.

명칭은 그룹의 CI인 행복날개를 활용해 SK건설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비상' 의 의미로 명명됐다.

행복날개협의회는 상·하반기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분과 간담회, 정기 총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향후 SK건설의 협력업체와 관련된 행사는 모두 행복날개협의회의 운영일정과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 회원사에 대해서는 금융(자금) 지원 및 입찰 참여기회 확대 등 SK건설이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SK건설 사업지원부문 정진철 전무는 "행복날개협의회 구성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채널을 갖게 된 만큼 더욱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K건설은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건설은 금융(자금)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등 지원, 기타 상생지원 등 5대 지원과제와 그에 따른 13개 중점추진사항을 시행하며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3백억원 규모 '중기 지원 펀드' 조성

울산 본사에서 '민관 공동 기술개발 펀드 협약식' 개최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15일 울산 본사에서 이재성 사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공동 기술개발 협력펀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청이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개발한 제품을 현대중공업이 구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비용을 개발과제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5%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정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 및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기술개발 펀드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확보, 개발 제품의 판로 보장, 경영 안정 등의 효과와 더불어 수입 자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이재성 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판로 보장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현대중공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협약식이 끝난 뒤 울산 북구 소재 일신정밀을 방문해 9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7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지원, 자재비 현금 지원, 기계산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 상생 IT 협업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들 테스코 그룹 통해 해외진출 지원

“교육으로 동반성장” .. ‘홈플러스 아카데미’ 를 협력업체와 공유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0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50여 협력업체 대표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협력회사 감사음악회’ 를 열고, 최근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동반성장’ 실현 방안을 밝혔다.

이날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교육’ 으로 협력하면서, 세계 14개국에 진출해있는 세계 3대 유통기업인 테스코 그룹을 통

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홈플러스 보다 규모가 10배 더 큰 테스코를 이용하면 협력업체들에게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홈플러스는 지난해 국가수출진흥기관인 코트라(KOTRA) 및 그룹사인 테스코와 함께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2개 업체와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중 17개 업체와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

이 회장은 또한 오는 7월 인천 무의도에 개원 예정인 ‘홈플러스 아카데미’ 를 통해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홈플러스 아카데미는 대지면적 24,000평, 연면적 4,400평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리조트형 아카데미로, 연간 교육가능 인원이 31,200명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24,000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인원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통해 홈플러스와 협력업체가 모두 경영 측면에 있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싶다”면서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을 협력업체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홈플러스 가족 중 하나인 중소 협력업체와 중견 협력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30대 그룹, 동반성장 위해 올해 1조원 이상 협력사 지원 계획

전경련 조사 결과·전년보다 24.9% 증가, 매출액 증가율의 2배가 넘어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30대 그룹은 올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보다 24.9% 증가한 1조 8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30대 그룹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증가율(10.6%)

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30대 그룹의 2010년 협력사 지원 실적 및 2011년 계획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지난해 총 8,652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24.9% 증가한 1조808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간 총 지원규모는 1조9,460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판매·구매지원이 7,182억 원(36.9%)으로 가장 크며, R&D 개발 지원(26.7%), 생산성 향상 지원(22.0%), 보증·대출 지원(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2년까지 1조원의 지원계획을 밝혔던 5대 기업은 동반성장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5개 기업은 협력사에 3,33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47.1% 증가한 4,9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대 기업은 R&D 지원 비중이 4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구매·판매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법도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룹들이 발표했던 다양한 협력사 지원계획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쇼핑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선정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로 기존 홈쇼핑과 차별화 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가칭 주식회사 ‘쇼핑원’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 16일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사업자로서 단독 신청한 쇼핑원은,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공공적 성격의 단체와 기관이 전체지분의 78%를 구성해 사실상 지분매각을 방지함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성격도 갖췄다.

쇼핑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향후 전체 채널 편성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 서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상품군인 가정용품, 패션의류, 농수축산 상품군 등을 주력 제품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홈쇼핑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홈쇼핑방송 제작 지원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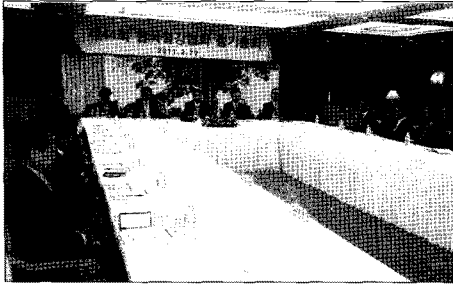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 안정화와 잔여 재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직매입제를 적극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마케팅과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익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쇼핑원은 또한 조기 경영 안정화를 통해 구현된 수익을 중소기업상품의 타 유통채널 연계판매 강화, 중소기업상품 해외수출 지원,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및 운영, 중소기업 신유통지원 개발원 설립 운영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환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일정이 당초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하반기쯤 첫 전파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동반성장과 고객가치를 위한 서비스 강화”가 기본 목표

철강협회,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2월 22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제 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금년에 ‘철강산업 동반성장과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기본목표로 정하고 △ 동북아 철강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강구 △ 온실가스 저감 대응 및 자원 재활용 확대 △ 시장개발 지원 등 동반 성장 협력 추진 △ 정책 발굴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동북아 철강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철강업체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일, 한·중 협력체제를 내실화 하게 된다.

수출입 급증에 대한 통상마찰을 사전 대비하며, 아세안 철강업계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 기능 및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대응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철강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칭 ‘철강슬래그재활용 자원화센터’를 설립해 슬래그를 자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철강 원자재인 철스크랩 유통구조 선진화 활동도 강화하여 자원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장개발 지원 등 동반성장 협력 추진을 위해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철강시장 개발을 위해 국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철강홍보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각종 철강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상무이사에 이병우 전 포스코 부장을 선임했다.